

# 한일 양국의 喪禮儀式에 나타나는 社會文化的 意識 비교

이경아\*  
dlruddka@hanmail.net

안병곤\*\*  
bgan@gn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2 제단 차림 |
| 2. 한일 양국 사회에서의 상례의식    | 3.3 애도 방식 |
| 3. 상례의식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意識 | 4. 결론     |
| 3.1 죽음의 알림             |           |

主題語: 祭壇(altar), 哀悼(condolence), 喪服(mourning clothes), 問喪(condolence call), 訃告(obituary notice), 位牌(ancestral tablet)

## 1. 서론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직접경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것 중 규격적이고 엄정한 것이 儀式이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종교적 의식이다. 이는 곧 죽음을 의식화하였고 죽음은 儀式에 의해 문화가 되었다. 문화가 된 죽음은 生者에 의해 하나의 儀式으로 나타난다.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상례의식의 일련 행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축소 내지 소멸되어 오늘날은 매우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성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儀式을 하는데 있어 생자들은 전통적인 상례의식을 바탕으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에서는 전통적인 意識에 바탕을 둔 일련의 儀式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 고인에 대해 내세의 행복을 기원하고 예를 다하여 격식을 갖추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형식으로 정중히 상례를 치르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에 의해 형성된 상례의식은 그 儀式을 실행하는 생자들의 意識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의 범주 안에서 한일 양국이

\* 경상대학교 일본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학과 교수

각각 달리 표현된다.

본 연구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상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적 관점에서 사생관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상례의식에서 意識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 논문은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인은 죽음의 처리과정 동안, 어떤 내·외적인 意識을 바탕으로 儀式에 임하고 있는지 意識調査를 통해 양국의 意識이 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意識調査는 한국의 경상남도 진주시(晉州市)와 일본의 미에현(三重県) 이세시(伊勢市)에서 사전조사를 하였다. 두 지역을 선택한 것은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진주시는 유교문화의 생활이 대체적으로 많이 잔존하는 지역이고, 이세신궁이 있는 이세시는 오랜 일본의 역사를 가진 가장 일본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역사적 배경아래 상례의식은 각각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두 지역에서 사전조사를 거친 후, 201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대, 50대, 60대 한일 양국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복수응답, 나이나 성별 미기재 등의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한국 241건, 일본 220건의 응답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명)

구 분	한 국			일 본		
	남	여	계	남	여	계
40대	42	45	87	40	38	78
50대	39	43	82	39	32	71
60대	37	35	72	35	36	71
계	118	123	241	114	106	220

## 2. 한일 양국 사회에서의 상례의식

전통사회에서는 집에서 행하던 상례의식은 현대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집으로부터 점점 바깥 장소 즉, 장례식장이나 종교 관련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집에서 유족과 친척, 이웃들에 의해 치르던 상례는 장례식장의 장례전문가에게 대부분 위임되어 생자들의 번거로운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儀式에 임하는 상례절차는 전통식에 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오늘날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상례의식은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생활문화의 主流였던 유교적 의식의 바탕 위에 도암 이재선생이 주희의 『주자가례(朱子家禮)』

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리하여 펴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사망자가 생기면 신앙과 관계없이 절(お寺)에 의뢰하여 의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sup>2)</sup>이다. 이것은 에도시대(江戸時代) 당시의 일본사회는 막부가 사원과 신사를 대상으로 법도를 정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던 사회였다.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지정책의 일환으로 데라우케(寺請)제도를 정하여 모든 사람들을 일정한 사원에 속하게 하는 일사일가(一寺一家)를 의무화 하였다. 단가(檀家)에 따른 데라우케(寺請)제도가 추진되었던 일본사회는 단나테라(檀那寺)의 승려에 의한 장례의식이 葬式佛敎를 만들게 되었고, 그 관념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례서에 따른 한국사회와 달리 일본사회는 통일된 상례의식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sup>3)</sup> 전통 상례의식<sup>4)</sup>과 각 종파<sup>5)</sup>의 상례의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전통사회에서의 상례의식을 살펴보면 한국은 27개월 후 탈상하고, 일본은 33회기(回忌) 또는 50회기를 끝으로 죽은 자는 조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끝으로 상주는 고인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자의 세계와 생자의 세계 사이에서 본래의 생활로 돌아와 사회에 재통합 하게 된다. 이와 같은 儀式은 생자와 사자 사이의 끈이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외적인 意識에 따라 전통방식에 준하는 儀式을 하게 된다. 먼저 喪이 발생하면 생자들은 죽음을 알리는 표현행위를 하게 되고, 초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단 차림이 진행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과 그들을 위로하는 주변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등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의 표출은 상례의식에서 한일 양국의 생자들이 직접 행함으로서 나타나고, 생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의식을 통해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 2002년 한국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상례절차에 대한 응답으로 전통식 62.3%, 현대식 18.6%, 기독교 식 10.7%, 불교식 5.2%, 기타 0.8%의 결과가 나왔다.

2) <http://sonbunji.heavy.jp/culture/budda/yono-gokai.html>. 葬儀の形式は仏敎が94.1%、神道が3.4%、キリスト敎が0.7%、無宗敎が0.5%であった。葬儀の大半は、仏敎式で営まれているのである。神道式の葬儀を選ぶのは、神道の信仰を持っている家である。キリスト敎の形式を選ぶのは、キリスト敎の信仰を持っている家や個人である。(略)ところが、仏敎式の葬儀を選ぶのは、仏敎への信仰を持っている家や個人だけとはかぎらない。仏敎の信仰を持っているのは、日本人全体の五分の一から四分の一程度である。

3) 牛込覚心(2000) 『葬式の探求』, 国書刊行会, p.23

4) 朱憲의 『朱子家禮』의 喪禮儀式과 일본 전통신앙의 儀式 일부를 따른 것

5) 현재 일본에 있는 불교의 宗派는 13宗56派가 있으며 그 가운데 天台宗, 眞言宗, 淨土宗, 淨土眞宗, 臨濟宗, 曹洞宗, 日蓮宗이 대표적이다.

### 3. 상례의식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意識

한일양국의 상례의식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일련의 상례의식에서 생자들이 어떤 意識으로 의식을 진행하는지를 죽음의 알림, 제단차림, 애도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각각의 儀式에 대한 한일양국의 意識에서 사회문화적인 상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죽음의 알림

죽음의 알림의식은 고인의 죽음을 외부에 알리는 외적표현이다. 생자들이 모두에게 죽음을 알리고, 상주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 전통적인 상례의식에서 생물학적 죽음이 확인되면 한일 양국은 제일 먼저 죽음의 알림의식으로 혼 부르기 의식을 한다. 이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되돌아 올 수는 없지만 고인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생자들의 행위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주위에 알리는 행위이다. 생자는 평소 고인이 입었던 옷을 지붕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흔들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고인의 죽음을 알리고 초상이 났음을 표현한다.

<표 2>는 혼 부르기 의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전통적인 상례의식에서는 죽음이 확인되면 고인이 평소 입었던 옷을 흔들면서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죽음을 알리는 혼 부르기 의식(초혼의식)을 합니다. 당신의 경우라면 이러한 의식을 하겠습니까?” 의 조사결과이다.

<표 2> 혼 부르기 의식 실행 여부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40	2	6.6	0	3.7	2	10.4	2	6.4	0	0.0	2	6.4
	50	6		3		9		10		0		10	
	60	8		6		14		2		0		2	
필요하다면 한다	40	22	24.5	17	19.1	39	43.6	22	27.7	19	17.7	41	45.4
	50	20		20		40		21		6		27	
	60	17		9		26		18		14		32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40	13	10.0	16	15.8	29	25.7	0	4.5	6	7.8	6	12.3
	50	6		15		21		7		5		12	
	60	5		7		12		3		6		9	
전혀 하지 않는다	40	4	5.4	7	8.3	11	13.7	0	5.0	1	9.5	1	14.5
	50	4		4		8		0		10		10	
	60	5		9		14		11		10		21	
잘 모르겠다	40	1	2.5	5	4.1	6	6.6	16	8.2	12	13.2	28	21.4
	50	3		1		4		1		11		12	
	60	2		4		6		1		6		7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2>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한일 양국 모두 혼 부르기 의식의 실행여부에서 ‘필요하다면 한다’에 한국 43.6%, 일본 45.7%로 가장 많으며 양국이 비슷한 비율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일 양국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또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에 한국 25.7%, 일본 12.3%로 한국이 일본보다 2배가 넘고, ‘전혀 하지 않는다’에 한일 양국 각각 13.7%, 1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에 한국은 남녀모두 10.4%인 반면, 일본은 남자만 6.4%의 비율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혼 부르기 의식의 실행에 한일 양국 모두 남자에 비해 여자가 낮아 다소 소극적인 면이 보인다. 그리고 남자가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은 상주리는 책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혼 부르기 의식의 필요성에 한국 54.0%, 일본 51.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식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3>은 혼 부르기 의식의 장소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상례 의식에서 혼 부르기 의식을 행하는 장소는 어디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3> 혼 부르기 의식의 장소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인의 머리맡	40	16	16.2	9	12.8	25	29.0	7	14.5	16	17.3	23	31.8	
	50	18		15		33		17		16		33		
	60	5		7		12		8		6		14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인 집의 지붕 위	40	8	10.8	8	9.5	16	20.3	6	5.0	0	0.0	6	5.0	
	50	6		7		13		0		0		5		
	60	12		8		20		5		0		5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의 집 주변의 어느 한 장소	40	6	9.5	12	15.8	18	25.3	8	11.4	0	0.9	8	12.3	
	50	8		17		25		5		0		5		
	60	9		9		18		12		2		14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와 멀리 떨어진 산이나 바다	40	2	1.7	2	2.9	4	4.6	0	0.0	0	0.0	0	0.0	
	50	2		2		4		0		0		0		
	60	0		3		3		0		0		0		
잘 모르겠다	40	10	10.8	14	10.0	24	20.8	19	20.9	22	30.0	41	50.9	
	50	5		2		7		17		16		33		
	60	11		8		19		10		28		38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3>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혼 부르기 의식을 행하는 장소에서 ‘고인의 머리맡’에 한국 29.0%, 일본 31.8%의 비율이 나타났다. 또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인 집의 지붕 위’에 한국 20.3%, 일본 5.0%로 한국보다 4배 낮게 나타났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의 집 주변 어느 한 장소’에 한국은 25.3%, 일본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12.3%로 나타났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와 멀리 떨어진 산이나 바다’에 한국이 4.6%, 일본은 0.0%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혼 부르기 장소에 대해 한국 74.6%, 일본 49.1%가 고인과 가까운 곳을 의식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별개가 아니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식불교를 따르는 일본은 윤회전생에서 혼이 유리된 육체는 빈 껍데기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인의 시신과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과 같이 고인의 주변을 의식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의식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만 한일 양국인의 意識에는 혼 부르기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을 알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상주는 상복을 입는다. 한일 양국은 喪中에 상복을 일정한 착용하며 고인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

<표 4>는 상복을 입는 이유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상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4> 상복을 입는 이유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효 사상에 근거한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	40	15	16.2	15	17.0	30	33.2	16	24.5	9	11.4	25	35.9
	50	7		17		23		15		1		16	
	60	17		9		26		23		15		38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40	7	10.0	9	13.7	16	23.7	12	13.2	10	13.6	22	26.8
	50	6		15		21		13		9		22	
	60	11		9		20		4		11		15	
상주임을 표시하기 위해	40	8	10.4	9	7.9	17	18.3	0	0.0	0	0.5	0	0.5
	50	15		1		16		0		1		1	
	60	2		9		11		0		0		0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	40	11	11.6	11	12.0	22	23.6	12	12.7	19	20.9	31	33.6
	50	10		10		20		10		21		31	
	60	7		8		15		6		6		12	
잘 모르겠다	40	1	0.8	1	0.4	2	1.2	0	1.4	0	1.8	0	3.2
	50	1		0		1		1		0		1	
	60	0		0		0		2		4		6	
합계		118	49	123	51	240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4>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상복을 입는 이유에서 ‘효 사상에 근거한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이 한국 33.2%, 일본 35.9%로 나타났다. 효와 예는 유교의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한국은 조선시대 이후의 유교적인 관념이 오늘날에도 생활전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효 사상에 근거한 예의 때문에 상복을 입는다는 선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 했지만 예상외로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1 만이 선택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선택이 낮을 것으로 예상 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에 한국 23.7%, 일본 26.8%로 양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복을 입는 것은 전통문화계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상주임을 표시하기 위해’가 한국이 18.3%인데 비해 일본은 0.5%로 아주 낮으며 한국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주리는 책임의식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이 한국 23.6%,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33.6%로 나타났다. 이는 조상대대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상복을 입는 이유로 한일 양국의 전체 응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효 사상에 근거한 선택은 유교적 효 意識이 한일 양국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복의 선택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지는 한일 양국인의 意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표 5>는 상복선택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상복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5> 종류별 상복 선택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 국						일 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삼베나 면으로 된 격식을 갖춘 전통 상복	40	9		14		23		8		4		12	
	50	22	18.7	6	14.1	28	32.8	7	12.7	5	10.0	12	22.7
	60	14		14		28		13		13		26	
흰색의 현대식 상복	40	2		7		9		1		0		1	
	50	4	3.3	3	5.4	7	8.7	0	0.5	0	0.0	0	0.5
	60	2		3		5		0		0		0	
검정색의 현대식 상복	40	20		13		33		28		34		62	
	50	11	17.0	26	21.2	37	38.2	27	33.6	27	37.3	54	70.9
	60	10		12		22		19		21		40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40	8		10		18		0		0		0	
	50	1	7.9	8	9.9	9	17.8	0	0.0	0	0.0	0	0.0
	60	10		6		16		0		0		0	
잘 모르겠다	40	3		1		4		3		0		3	
	50	1	2.1	0	0.4	1	2.5	5	5.0	0	0.9	5	5.9
	60	1		0		1		3		2		5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5>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종류별 상복선택에서 ‘검정색의 현대식 상복’에 한국 38.2%, 일본 70.9%가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한국보다 일본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사회적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검정색 상복이 통념화 된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 서구문화의 접촉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중들에게 보편화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터이다. 한국 역시 검정색 현대식상복 선택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데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허례허식의 자제와 사회적 제도에 따른 간소화 때문으로 보인다. ‘삼베나 면으로 된 격식을 갖춘 전통상복’에서 한국이 32.8%가 나타난데 비해, 일본은 22.7%가 나타나 한국이 전통식 상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전통상복 선택에서 한일 양국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반면에 현대식 상복 선택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儀式的 중심은 대부분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남자를 보조해 주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여자에게는 소소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 전통복장은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여자의 경우 간편한 현대식상복의 선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상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는 남자는 편리성보다 전통성을 우선시하고, 상주로서의 책임의식이 희박한 여자는 편리성을 우선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6>은 상복선택의 이유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귀하가 <표 5>의 선택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6> 상복 선택의 이유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대다수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	40	6		5		11		0		3		3	
	50	8	6.6	5	5.4	13	12.0	0	0.9	8	5.9	8	6.8
	60	2		3		5		2		2		4	
전통 상복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	40	17		21		38		11		10		21	
	50	10	19.1	25	25.3	35	44.4	5	13.2	2	8.6	7	21.8
	60	19		15		34		13		7		20	
전통 상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40	2		1		3		10		4		14	
	50	1	1.3	1	1.2	2	2.5	0	4.5	8	5.5	8	10.0
	60	0		1		1		0		0		0	
집안의 장례방식에 따른 것	40	10		14		24		11		17		28	
	50	19	18.7	11	17.0	30	35.7	29	25.9	14	24.6	43	50.5
	60	16		16		32		17		23		40	
잘 모르겠다	40	7		4		11		8		4		12	
	50	1	3.3	1	2.1	2	5.4	5	7.3	0	3.6	5	10.9
	60	0		0		0		3		4		7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6>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상복 선택의 이유에서 한국은 ‘전통 상복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이 44.4%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집안의 장례방식에 따른 것’에 50.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35.7%를 보이는 ‘집안의 장례방식에 따른 것’을 선택한 응답자 대부분이 앞서 <표 5>의 종류별 상복 선택에 대한 意識에서 선택지 ‘삼베나 면으로 된 격식을 갖춘 전통상복’을 선택한 응답자와 상호연관성이 있다. 또한 <표 5>의 선택지 가운데 ‘흰색의 현대식 상복’, ‘검정색의 현대식 상복’,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표 6>의 선택지 ‘대다수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 ‘전통 상복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 ‘전통 상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을 선택하였다. 이 가운데 ‘전통 상복에 비해 편리하기 때문’을 선택한 응답자 모두가 <표 5>의 선택지에서 ‘현대식 검정색 상복’을 선택한 응답자로서 의식에서 형식보다는 편리성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의 알림에서 喪이 발생하면 죽음을 친지나 지인, 이웃에 그 사실을 알린다.

<표 7>은 부고의 전달방법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부고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의 조사결과이다.

&lt;표 7&gt; 부고의 전달방법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신으로	40	18	14.9	13	13.3	31	28.2	29	39.5	21	20.9	50	60.5
	50	15		14		29		28		6		34	
	60	3		5		8		30		19		49	
신문에 게재	40	0	1.7	1	0.4	1	2.1	0	0.0	0	0.0	0	0.0
	50	1		0		1		0		0		0	
	60	3		0		3		0		0		0	
전화로	40	20	29.5	30	34.9	50	64.4	11	12.3	17	27.3	28	39.5
	50	23		27		50		11		26		37	
	60	28		27		55		5		17		22	
인터넷 메일로	40	3	1.7	0	1.2	3	2.9	0	0.0	0	0.0	0	0.0
	50	0		2		2		0		0		0	
	60	1		1		2		0		0		0	
직접 가서 口頭로	40	1	1.2	1	1.2	2	2.4	0	0.0	0	0.0	0	0.0
	50	0		0		0		0		0		0	
	60	2		2		4		0		0		0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7>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부고의 전달에서 ‘서신으로’에 한국 28.2%, 일본 60.5%가 나타났고, ‘전화로’에 한국 64.4%, 일본 39.5%가 나타났다. 전달 방법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意識의 차이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보다 일본이 전통과 관습에 따른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부고 전달에서 ‘서신으로’의 선택이 한일 양국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전화로’의 선택이 한일 양국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높음으로서 여자가 편리성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고전달에서 한국은 간편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방법을 선호하고, 일본은 전통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3.2 제단 차림

초상이 나면 고인을 위한 제단이 차려지는데 제단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위패, 향, 초, 꽃을 놓는다. 이것을 중심으로 생자의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은 위패를 세우는 이유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위패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8> 위패를 세우는 이유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인의 영혼을 모셔두기 위해	40	23	30.4	25	24.9	48	55.3	17	31.4	10	20.9	27	52.3
	50	26		15		41		26		16		42	
	60	24		20		44		26		20		46	
격식을 갖추기 위해	40	3	2.1	5	4.5	8	6.6	1	1.3	6	3.2	7	4.5
	50	1		5		6		2		1		3	
	60	1		1		2		0		0		0	
그 집안 사람임을 표시하기 위해	40	6	4.1	4	4.6	10	8.7	0	2.3	5	3.6	5	5.9
	50	2		5		7		5		0		5	
	60	2		2		4		0		3		3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	40	10	11.2	10	15.3	20	26.5	20	14.5	16	18.2	36	32.7
	50	8		15		23		5		15		20	
	60	9		12		21		7		9		16	
잘 모르겠다	40	0	1.2	1	1.7	1	2.9	2	2.3	1	2.3	3	4.6
	50	2		3		5		1		0		1	
	60	1		0		1		2		4		6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8>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위패를 세우는 이유에서 ‘고인의 영혼을 모셔두기 위해’에 한국 55.3%, 일본 52.3%로 양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교적 사생관에 의하면 혼(정신)과 백(육체)이 일체가 되는 상태는 생(生)이고, 혼과 백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죽음(死)이라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 혼을 불러 내렸을 때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위패이기 때문에 위패는 고인의 영혼을 모셔두기 위한 자리로 한일 양국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은 위패에 고인 생전의 姓과 관직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승려에게 고인의 새로운 이름인 카이묘(戒名)를 받아 그 이름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표 10>은 일본사회에서 카이묘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카이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lt;표 9&gt; 카이묘(戒名)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인의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일본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에 납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40	28	32.7	4	16.4	32	49.1
	50	23		17		40	
	60	21		15		36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하다	40	7	8.2	15	8.6	22	16.8
	50	6		2		8	
	60	5		2		7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더라도 그 장소에 납골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	40	2	3.2	1	1.8	3	5.0
	50	5		3		8	
	60	0		0		0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의 유무에 상관없이 필요 없다	40	0	3.6	3	7.3	3	10.9
	50	0		1		1	
	60	8		12		20	
잘 모르겠다	40	3	4.1	15	14.1	18	18.2
	50	5		12		17	
	60	1		4		5	
합계		114	51.8	106	48.2	220	100

<표 9>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카이묘의 필요성에서 49.1%가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에 납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를 선택하였다. 또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하다’에 16.8%가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5.9%가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더라도 그 장소에 납골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에 5.0%, ‘선조대대의 위패가 있는 절의 유무에 상관없이 필요 없다’에 10.9%를 보이며 전체 응답자의 15.9%는 카이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이지(菩提寺)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인의 意識에는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상이 발생하면 죽음의 알림으로 향을 피우고, 대문 밖에는 등을 단다. 이러한 행위는 喪을 치르는 동안 내내 향을 피우고 등을 달아 그 향기와 불빛을 이용하여 혼을 부르는 행위, 즉 초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문헌에는 기술하고 있다.

<표 10>은 喪家에서 향을 피우는 의미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喪中에 향을 피우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0> 향을 피우는 의미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영혼이 향의 연기를 타고 와 상가에 머물게 하려고	40	15	17.8	19	19.1	34	36.9	23	29.1	12	22.7	35	51.8
	50	10		13		23		18		21		39	
	60	18		14		32		23		17		40	
주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40	9	13.3	12	13.7	21	27.0	7	12.3	7	7.7	14	20.0
	50	12		11		23		10		2		12	
	60	11		10		21		10		8		18	
상가의 부정을 없애기 위해	40	9	6.7	3	3.3	12	10.0	0	0.4	0	4.1	0	4.5
	50	6		3		9		0		4		4	
	60	1		2		3		1		5		6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	40	9	10.4	7	12.0	16	22.4	10	6.8	13	9.6	23	16.4
	50	9		15		24		5		4		9	
	60	7		7		14		0		4		4	
잘 모르겠다	40	0	0.8	4	2.9	4	3.7	0	3.2	6	4.1	6	7.3
	50	2		1		3		6		1		7	
	60	0		2		2		1		2		3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0>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상중에 향을 피우는 의미에서 ‘영혼이 향의 연기를 타고 와 상가에 머물게 하려고’에 한국 36.9%, 일본 51.8%로 나타났다. 이 선택지에서 일본의 경우 <표 8>의 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연관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위패를 모셔두는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향도 위패와 마찬가지로 혼을 모셔두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주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에 한국 27.0%, 일본 20.0%로 나타났다. ‘상가의 부정을 없애기 위해’에 한국 10.0%, 일본 4.5%의 비율을 보이며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이 한국 22.4%, 일본 16.4%를 보이고 있다. 천상의 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향기를 위로 올리는 데서 향을 피우는 의례가 생겨났고, 지상에 백을 모시기 위해 모사기(茅沙器)를 만들어 그 위에 술을 붓는 혼·백 의례가 생겨났으며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 장식불교에 따르는 일본은 윤회전생 사생관의 관점에서 보면 혼을 불러들이는 분향관주는 모순이다. 하지만 일본은 인도불교의 윤회전생과 유교의 초혼재생을 병존시켜 의례를 하고 있고, 또 儀式에 종교의 습합이 사회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喪家에서 촛불을 밝히는 의미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喪中에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1> 촛불을 밝히는 의미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영혼이 밝은 불빛을 보고 찾아와 상가에 머물게 하려고	40	21	26.6	22	21.2	43	47.8	15	26.8	17	26.8	32	53.6
	50	23		13		36		22		22		44	
	60	20		16		36		22		20		42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40	0	0.4	0	0.8	0	1.2	5	2.7	0	0.9	5	3.6
	50	0		1		1		0		0		0	
	60	1		1		2		1		2		3	
상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40	13	7.9	7	6.6	20	14.5	0	4.5	0	3.7	0	8.2
	50	3		6		9		0		0		0	
	60	3		3		6		10		8		18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	40	7	12.4	11	16.6	18	29.0	15	11.4	12	10.9	27	22.3
	50	11		15		26		10		8		18	
	60	12		14		26		0		4		4	
잘 모르겠다	40	1	1.7	5	5.8	6	7.5	5	6.4	9	5.9	14	12.3
	50	2		8		10		7		2		9	
	60	1		1		2		2		2		4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1>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상중에 촛불을 밝히는 의미에서 ‘영혼이 밝은 불빛을 보고 찾아와 상가에 머물게 하려고’에 한국 47.8%, 일본 53.6%가 나타났다. ‘조상대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이기 때문’이 한국 29.0%, 일본 22.3%로 나타났는데 한일 양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높았다. ‘상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에 한국 14.5%, 일본 8.2%를 보였다. 한일 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혼이 밝은 불빛을 보고 찾아와서 상가에 머물게 하려고’의 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은 촛불을 밝히는 의미에 대해 혼기(魂氣)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과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의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초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촛불은 조명역할로써 실용적 의미로도 인식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야간 의례의 주변 여건은 오늘날처럼 스위치만 켜면 상가전체가 밝은 빛 속에서 의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은 주위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실용적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과 <표 11>의 조사결과를 통해 향과 촛불은 상을 치르는 기간 내내 켜둠으로써 그 향기와 불빛을 보고 영혼이 어둠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3 애도 방식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유족, 친족, 그 밖에 고인과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내적

인 형태를 바깥으로 표출하게 된다.

<표 12>는 상을 당한 입장에서 슬픔의 표현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유족이라면 슬픔의 표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2> 슬픔의 표현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 한다	40	7		15		22		1		0		1	
	50	11	7.9	4	9.1	15	17.0	0	3.2	0	0.9	0	4.1
	60	1		3		4		6		2		8	
대성통곡은 하지 않지만 운다	40	24		23		47		19		14		33	
	50	17	26.6	33	33.2	50	59.8	17	23.2	11	15.0	28	38.2
	60	23		24		47		15		8		23	
흐느끼며 훌쩍거리다	40	7		5		12		2		4		6	
	50	3	5.8	5	5.0	8	10.8	5	3.6	6	8.2	11	11.8
	60	4		2		6		1		8		9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는다	40	4		2		6		18		20		38	
	50	8	8.3	1	3.7	9	12.0	11	19.1	15	24.1	26	43.2
	60	8		6		14		13		18		31	
전혀 울지 않는다	40	0		0		0		0		0		0	
	50	0	0.4	0	0.0	0	0.4	6	2.7	0	0.0	6	2.7
	60	1		0		1		0		0		0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2>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슬픔의 표현에서 한국은 59.8%가 ‘대성통곡은 하지 않지만 운다’에, 일본은 43.2%가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는다’가 가장 높았다.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대성통곡은 하지 않지만 운다’에서 일본의 비율은 38.2%이며,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는다’에서 한국의 비율은 12.0%로 일본보다 4배정도 낮게 나타났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한 것이다. 이처럼 슬픔의 표현에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슬픔을 표출하는 반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표출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메이와쿠(迷惑)는 금물이라는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 슬픔이 비통함으로 표출되면 상대방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줌으로써 메이와쿠(迷惑)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슬픔의 표현에서 한국은 동적인 면이 나타나는반면, 일본은 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표 13>은 종교여부에 따른 슬픔의 정도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종교(신앙)의 여부에 따라 그 슬픔의 정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3> 종교여부에 따른 슬픔의 정도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종교가 있든 없든 매우 슬프다	40	17	26.1	27	27.8	44	53.9	27	28.2	19	21.8	46	50.0	
	50	25		24		49		18		11		29		
	60	21		16		37		17		18		35		
종교가 있든 없든 슬프다	40	18	15.4	11	15.4	29	30.8	13	18.2	11	18.6	24	36.8	
	50	9		12		21		16		17		33		
	60	10		14		24		11		13		24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슬프지 않다	40	2	3.7	5	6.6	7	10.3	0	5.4	4	4.1	4	9.5	
	50	3		7		10		5		0		5		
	60	4		4		8		7		5		12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다	40	2	1.7	1	0.4	3	2.1	0	0.0	4	1.8	4	1.8	
	50	1		0		1		0		0		0		
	60	1		0		1		0		0		0		
잘 모르겠다	40	3	2.1	1	0.8	4	2.9	0	0.0	0	1.9	0	1.9	
	50	1		0		1		0		4		4		
	60	1		1		2		0		0		0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3>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종교의 여부에 따른 슬픔의 정도에서 ‘종교가 있든 없든 매우 슬프다’에 한국 53.9%, 일본 50.0%가 선택하여 한일 양국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가 있든 없든 슬프다’에 한국 30.8%, 일본 36.8%를 선택하여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결과를 통해 종교가 있든 없든 유족들이 느끼는 슬픔은 한국 84.7%, 일본 86.8%로 강하게 나타났다. 유교적 의식구조를 가진 한국은 현실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죽음은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고인의 죽음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정도가 적극적이고 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상이 발생하면 절에 의지하는 일본인은 내면적인 관념도 윤회전생이라는 불교적 관념이 작용하여 슬픔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슬픔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죽음은 종교의 유무나 사후관념에 상관없이 슬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인간관계 형성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각 사회의 문화적 틀에 구속된다.<sup>6)</sup> 한일 양국의 인간관계는 상례의식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표 14>는 장례식 참석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장례식

6) 정현숙, 정미애 공저(2005)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54.

참석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4> 장례식 참석여부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참석한다	40	5		1		6		17		12		29	
	50	11	7.1	4	2.1	15	9.2	27	28.2	15	20.5	42	48.6
	60	1		0		1		18		18		36	
고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유족들과 관계가 있으면 참석한다	40	28		33		61		8		18		26	
	50	22	35.3	36	40.7	58	76.0	6	12.7	8	17.3	14	30.0
	60	35		29		64		14		12		26	
고인, 유족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애도를 표하고 싶으면 참석한다	40	9		8		17		15		6		21	
	50	5	5.8	2	5.8	7	11.6	0	6.8	1	5.9	1	12.7
	60	0		4		4		0		6		6	
고인과 관련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는다	40	0		2		2		0		0		0	
	50	1	0.8	0	1.2	1	2.0	5	2.3	0	0.0	5	2.3
	60	1		1		2		0		0		0	
잘 모르겠다	40	0		1		1		0		2		2	
	50	0	0.0	1	1.2	1	1.2	1	1.8	8	4.5	9	6.4
	60	0		1		1		3		0		3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4>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장례식 참석여부에서 한국은 ‘고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유족들과 관계가 있으면 참석한다’에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참석한다’에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고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유족들과 관계가 있으면 참석한다’에서 일본의 비율은 30.0%로 한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참석한다’에서 한국의 비율은 9.2%에 불과하였다. ‘고인, 유족과 관련은 없지만 애도를 표하고 싶으면 참석한다’에 한국 11.6%, 일본 12.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인관관계에 대한 양국의 사회모습을 볼 수 있으며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 한국사회의 장례식 참석여부는 고인보다 유족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짓지만 일본은 유족보다 고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따라 결정짓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고인과의 관계를 떠나 유족과의 관계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표 15>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사회 구조의 하나인 온, 기리, 기무(恩, 義理, 義務)의 규범에 의한 결정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5>는 문상을 가는 이유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意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문상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조사결과이다.

<표 15> 문상을 가는 이유에 대한 意識 (단위: 명, %)

항목	연령대	한국						일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	40	14	17.9	22	19.9	36	37.8	37	38.7	17	22.7	54	61.4
	50	18		15		33		20		22		42	
	60	11		11		22		28		11		39	
친분 때문	40	24	23.7	20	27.0	44	50.7	1	2.7	4	6.8	5	9.5
	50	11		25		36		1		10		2	
	60	22		20		42		4		14		14	
의리와 의무감 때문	40	3	3.3	1	1.2	4	4.5	2	8.6	15	14.6	17	23.2
	50	4		1		5		17		9		26	
	60	1		1		2		0		8		8	
누구나 닥치는 일이므로 자신의 경우를 대비해서	40	1	4.1	2	2.9	3	7.0	0	0.9	0	2.3	0	3.2
	50	6		2		8		0		5		7	
	60	3		3		6		2		7		7	
잘 모르겠다	40	0	0.0	0	0.0	0	0.0	0	0.9	2	1.8	2	2.7
	50	0		0		0		1		0		1	
	60	0		0		0		1		2		3	
합계		118	49	123	51	241	100	114	51.8	106	48.2	220	100

<표 15>의 조사결과를 고찰해 보면, 문상을 가는 이유에서 한국은 50.7%가 ‘친분 때문’인 반면, 일본은 61.4%가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친분 때문’은 일본의 경우 9.5%로 나타나 한국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또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는 한국의 경우 37.8%를 차지하며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3번째 선택지 ‘의리와 의무감 때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율이다. 이 선택지에서 한국은 4.5%, 일본은 23.2%의 비율을 보이는데 앞의 <표 14> 선택지에서 ‘고인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관계가 있으면 참석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표 15>의 선택지 ‘의리와 의무감 때문’을 선택한 응답자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사회구조에 대해 앞서 서술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응답자의 절반이 선택한 ‘친분 때문’은 일본처럼 의리와 의무감에서 가기 보다는 인정에 따라 문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정으로 인간관계가 보편화 된 한국 사회는 문상에서도 인정이 상당수 작용하며, 일본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더불어 은, 기리, 기무(恩, 義理, 義務)의 사회문화적인 규범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이 죽음을 처리하는 동안 생자들은 어떤 내·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儀式에 임하고 있는지 생자들의 행위와 인식에 대해 한일 양국의 意識調査를 통해서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첫 번째 죽음의 알림에서 첫째, 혼 부르기 의식의 실행여부에서 한일 양국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혼 부르기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례의식에서 남자가 喪主라는 책임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혼 부르기 장소에서 한일 양국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유교적 사후관념이 의식을 하는 장소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복을 입는 이유로 한일 양국 모두 효 사상에 근거한 고인에 대한 예의,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 조상 대대로 해 왔던 사회적인 관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효 사상에 근거해서는 유교의식이 생활전반에 깔린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 높게 의식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 집안 대대로 해 왔던 사회적인 관습 때문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상복 선택에서 한일 양국은 전통상복보다 편리성에 중점을 둔 현대식 검정색 상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일 양국 모두 사회적 제도에 의한 간소화 된 상례의식에 따른 것과 생활패턴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부고전달 방법에서 한국은 정보매체를 이용한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서신으로 전달하는 전통성을 중시한 형태를 선호하였다.

두 번째 제단차림에서 첫째, 위패를 세우는 이유가 양국 모두 고인의 영혼을 모셔두기 위해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카이묘(戒名)는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문화로서 일본 인들은 카이묘(戒名)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일본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향과 촛불을 피우는 의미는 한일 양국 모두 혼이 향의 연기와 촛불의 불빛을 타고 상가에 머물게 하려는 것으로 인식하며 한국보다 일본이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양국 모두 혼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과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의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 번째 애도방식에서 첫째, 슬픔의 표현이 한국은 동적, 일본은 정적으로 나타나며, 슬픔의 정도는 장식불교를 따르는 일본인의 사후관념에 反하는 형태, 즉 비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여부에 따른 슬픔의 정도는 양국 모두 종교유무에 상관없이 죽음은 슬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례식 참석여부는 한국이 유족들과의 관계에

의해 참석여부를 결정짓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은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참석여부를 결정짓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상하는 이유로 한국은 친분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일본은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리와 의무감의 영향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친분에 의한 인간관계 외에도 사회적 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상을 하는 사회적제도에 한국보다 더 얽매이는 특징이 보인다. 여기서 한국의 인정문화와 일본의 은, 기리, 기무(恩, 義理, 義務)문화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상례의식에서 죽음의 알림, 제단 차림, 애도 방식을 통한 의식에서 생자들의 意識을 통해 양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의해 개인의 일생은 끝나지만, 죽음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사회성을 가진 중요한 의례로 의식이 치러진다. 상례의식은 인간이 만들어 낸 죽음의 문화의식이고, 이 문화의식은 사회환경이나 문화양식에 대한 意識이 변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 변한다. 전통사회에서 복잡하게 실행되던 상례의식은 현대인들의 儀式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소화되고, 전통성보다는 편리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생자들의 의식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례에 대한 전통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식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식을 갖춘 의례의 중요성은 알지만 유족은 물론 친족, 지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 의례를 간소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간소화된 상례의식마저도 향후에는 대부분 장례전문가에게 위임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의례는 형식에 거친 儀式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한다.

## 【參考文獻】

- 도암 이재(1992) 『국역 사례편람』 명문당  
 배영기(2006)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정현숙, 정미애 공저(2005)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崔吉城(1989) 『日本葬禮의 比較民俗學的 考察』 比較民俗學 5輯  
 井之口章次(1982) 『日本の葬式』 筑摩叢書240  
 牛込覚心(2000) 『葬式の探求』 国書刊行会  
 多田孝正(2008) 『日本仏教儀禮の解明—お位牌はどこから来たのか』 興山舎  
 加地伸行(1995) 『沈黙の宗教 儒教』 ちくまライブラリー-99  
 坪井洋文(1971) 『日本を知る事典』 社会思想社  
 山田眞也(2007) 『現代日本の死と葬儀』 東京大学出版社  
<http://ja.wikipedia.org/wiki/%E4%B8%8B%E5%8C%97%E5%8D%8A%E5%B3%B6>  
<http://www.geocities.jp/jukyosikai/kazoku/norinaga.html>

<http://kin.naver.com/qna/detail.nhn>

<http://sonbunji.heavy.jp/culture/budda/yono-gokai.html>.

---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

---

 <要旨>
 

---

### 한일 양국의 喪禮儀式에 나타나는 社會文化的 意識 비교

상례의식은 인간이 만들어 낸 죽음의 文化儀式이고, 이 문화의식은 사회환경이나 문화 양식에 대한 意識이 변하면 영향을 받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상례의식에서 한일 양국 생자들이 행하는 행위에서 내·외적인 표현을 意識조사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죽음의 알림에서 혼부르기 의식의 필요성 인식, 사회제도로 인한 상복의 간소화, 부고전달에서 편리함을 선호하는 한국, 전통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사회모습이 나타났다. 제단차림에서 향과 촛불은 혼을 모셔두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위패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적인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위패에 고인의 생전 이름이 아닌 사후의 이름인 가이묘(戒名)를 쓴다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본인들은 가이묘(戒名)짓기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애도방식에서 슬픔의 표현이 한국은 動的, 일본은 靜的으로 나타났다. 장식불교에 따른 일본인은 슬픔의 정도가 비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사후관념에 反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상이유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의리와 의무감 때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친분에 의한 인간관계 외에도 사회적 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상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적제도에 한국보다 더 엄메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n Funeral Service(Sangnyeuisik) between Korea and Japan

Funeral service or Sangnyeuisik is a cultural ritual of death that was created by human beings; such a cultural ritual is inevitably affected by changes of consciousness toward social environments or cultural patterns. This study looked into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through attitude surveys that internally and externally showed a series of Korean and Japanese bereaved family's behaviors in Sangnyeuisik. As a result, it was witnessed that Korea seemed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calling back the spirit of a deceased person in the ritual, simplify styles of mourning clothes in line with the social system, and prefer a convenient method in informing someone's death to the neighborhood, or obituary notice; and Japan seemed to emphasize its traditionality; and to some extent both countries put meanings on incenses and candles, which are considered holding a spirit, in setting a altar. However, there was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 in an ancestral table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ase of Japan, this study uniquely found that the Japanese did not carve the dead's name before his/her death on an ancestral tablet, but carved a newly designated name after his/her death, or Kaimyo, on it, which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ritual step. To express one's condolence, the Korean do it in an active way while the Japanese do it in a static way. The fact that the level of sadness in Japanese ritual seems more deepened represents an unexpected result against the Japanese after-death notion closely related to ornament Buddhism. Additionally, the Japanese more likely make a condolence call than the Korean because they feel more stress of loyalty and sense of obligation; this means that the Japanese more likely tend to be constrained by their social system along with acquaintance-based social atmosphere compared with the Korean.